

‘해남 고구마’ 명품 브랜드 재도약 시동

3만㎡ 규모 고구마연구센터 설립

신품종 육성·병해충 진단 등 포괄

부산물 활용 15종 가공제품 개발

지리적표시 제42호 해남 고구마가 명품 브랜드 재도약에 시동을 걸었다.

해남군은 대표 특산물 ‘해남고구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과 가공, 유통에 이르는 고구마 산업 전 과정을 새롭게 설계하고, 고구마연구센터를 설립하는 등 대대적인 혁신에 나섰다.

13일 해남군에 따르면 삼산면 평활리에 조성된 3만㎡ 규모의 고구마연구센터는 신품종 육성과 병해충 진단, 저장·선별 기술, 가공 상품 연구 등 고구마 산업의 전 단계를 총괄하는 거점 시설로 조성됐다.

해남고구마 신품종 육성과 생산기술을 연구·보급하는 전진기지로써 연구시설과 노지 시험포를 갖추고 고구마 산업의 체계적인 기술 개발과 현장 실증을 담당하게 된다.

외래종 고구마를 대체할 해남 특화의 우량품종을 개발하고, 기상재해와 병해충으로 인한 품



질 저하에 대처하는 안정적인 생산기술 연구, 가공 상품의 연구개발 등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고구마연구센터를 거점으로 신품종 개발부터 표준 재배 기술 확립, 가공산업 육성, 유통 일원화까지 고구마 산업의 전 단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 체계적인 고구마 산업 육성에 나선다.

먼저 식용과 가공용을 아우르는 고품질 신품종을 직접 개발하고, 다수확·내재해성·내병충성 품종으로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AI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농기계와 노지 스마트팜을 도입해 정밀한 농작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 안정적인 생산 시스템 구축하는 실증연구에도 착수했다.



▲해남 고구마 육종 시범포. ▲명현관 해남군수가 지난해 해남 미남축제 고구마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해남군 제공>

또한 맞춤형 방제와 표준재배 매뉴얼을 마련해 토양 관리, 재식거리, 병해충 방제, 수확 시기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배부터 수확·저장·선별·유통까지 전 과정을 표준화해 균일한 품

질을의 고구마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공 산업화와 유통혁신도 본격화된다.

고구마 순과 잎 등 부산물을 활용한 기능성 소재 연구를 확대하는 등 2025~2030년까지 총 15종의 가공 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간편식(HMR), 건강기능식품 등 새로운 소비 시장을 겨냥한 제품을 선보여, 고구마 산업을 단순한 농산물 판매에서 6차 산업으로 확장한다.

해남군은 중소 농가를 중심으로 공동 선별·출하회를 조직화하고, 단계적으로 규모를 확대해 회사형 유통조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생산자 중심의 조직화를 통해 품질 균일화, 표준 선별·등급화, 수확 후 관리 체계 마련 등을 추진해 유통 안정성과 가격 경쟁력을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해남고구마가 오랜 명성에 안주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최고 품질의 고구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남은 600여 농가, 2천여ha 재배면적에서 연간 3만 4천여t의 고구마를 생산하는 전남 최대 고구마 주산단지로 전국 재배면적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해남=박필용 기자

목포해양대-한국해양대, 해양강국 도약 머리 맞대

오늘 국회서 ‘1國 1해양대’ 포럼

국립목포해양대학교와 국립한국해양대학교가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해양강국 대한민국, 1國 1해양대 초광역 인재로 도약’을 주제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13일 목포해양대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거기 위원장이 주최하고, 국립목포해양대와 국립한국해양대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포럼에는 조경태, 박지원, 이현승, 서삼석, 김원이, 김대식, 문금주, 조승환, 이병진, 서미화, 주진우 국회의원도 공동주최로 참여하며 산업계 및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 등 각계 리더들이 함께하면서 대한민국 해양의 미래 비전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해양 안보 중요성 증대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해양 역량 확보는 국가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국립목포해양대와 국립한국해양대는 ‘1國 1해양대’ 통합을 통해 해양교육의 백년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지난 5월에는 교육부 ‘글로벌대학30’ 사업에 예비지정되며 국가 전략형 초광역 해양특성화 통합대학 모델의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이후 부산광역시, 전남도와의 초광역 해양동

맹 결성, 전국 수해양계 특성화고와의 업무협약 체결 등 ‘1國 1해양대’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포럼은 이 같은 노력의 연장선에서 ‘1國 1해양대’ 통합 비전을 국민과 공유하고, 초광역 해양 인재 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에서는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이승효 교수가 ‘초광역 해양특성과 글로벌 해양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혁신전략’을, 국립목포해양대학교 김성국 교수가 ‘경제안보 시대의 국가 필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국립 해양대의 역할’에 대해 발표한다.

이후 김인현 고려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토론회에서는 박성현 전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김종태 한국해기사협회장, 양창호 한국해양운협회 상근부회장 등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대한민국 해양 미래를 위한 심도 있는 정책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국립목포해양대 한원희 총장과 국립한국해양대 류동근 총장은 “이번 포럼은 단순한 대학 통합을 넘어, 대한민국이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적 담론을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각계의 지혜를 모아 ‘1國 1해양대’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초격차 해양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혜선 기자

강진-인천공항 직행버스 오늘부터 운행

일 1회 상·하행...군민 교통편의 개선

강진군과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직행 우등버스가 14일부터 운행한다.

13일 강진군에 따르면 이번 노선은 군을 거점으로 나주혁신도시를 경유, 인천공항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을 목적지로 하루 1회 상행과 하행 운행이 이뤄진다.

인천공항 이용 때 환승에 따른 불편이 컸던 군민들에게는 시간 절약과 이동 편의성 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행 노선은 강진에서 0시 30분 출발해 나주

혁신도시를 거쳐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 5시, 제2터미널에 5시25분에 도착한다. 하행 노선은 인천공항 제2터미널 오전 8시15분 출발해 제1터미널을 경유한 후 나주혁신도시를 거쳐 강진에 오후 1시15분에 도착하는 일정이다.

총 운행거리는 약 400km로, 우등버스를 투입해 장시간 이동의 피로도를 낮추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운행 차량은 28석 규모의 우등 버스로, 주간 요금은 5만6천700원, 야간 요금은 6만8천원이다. 예매의 경우 현장발권 및 모바일(티머니go, 고속버스모바일) 예매로 가능하며 강진버스여

객터미널 매표소(061-432-9666)를 통한 전화예매도 가능하다.

이번 노선 신설은 최근 인천공항을 이용하려는 지역민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군민들의 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인천공항 직행버스 신설은 군민들의 장거리 교통 불편을 줄이고, 광역 교통 인프라 접근성을 한층 강화할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더욱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장세일 영광군수가 지난 11일 전기저상버스를 둘러보고 있다.

<영광군 제공>

영광군, 전기저상버스 10대 도입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기대

영광군은 13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과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를 위해 전기저상버스 10대 도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자부담 등 총사업

비 36억원이 투입됐다. 도입된 차량은 중형 8대, 대형 4대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향상과 도심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기버스는 소음·진동이 적어 이용객 만족도가 높고 경우 대비 연료비가 적게 들어 농어촌버스사업자 경영 여건 개선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다.

앞서 장세일 영광군수는 공약사업인 전기저상버스 도입 사업 점검을 위해 지난 11일 신규 도입된 전기버스를 둘러보고 영광교통 관계자와 교통약자 대상 안전 및 친절 운행에 관한 당부와 의견을 청취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전기저상버스 도입은 장애인이동권 확대 및 교통분야 탄소중립 전환을 앞당기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내년까지 8대를 추가 도입해 전기저상버스 전면 교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영암에 고향사랑기부하면 쌀과 멜론이 덤”

31일까지 특별 이벤트

영암군은 14일부터 이달 말까지 고향사랑기부 특별 이벤트 ‘영암사랑기부했다니 쌀에, 멜론까지?’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 이벤트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고, 기부자에게 영암의 우수 농산물을 맛 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암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고, 영암쌀인 달마지쌀, 학이머문쌀 10kg을 답례품으로 주문하면 기부 기간에 상관없이 1kg을 추가 증량해 주고, 특별 이벤트 기간 내 기부

자 중 50명을 따로 추첨해 멜론을 증정한다.

달마지쌀과 학이머문쌀은 청정 토양과 기후에서 재배돼 맛과 품질이 뛰어나 소비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영암 대표 쌀이다.

영암멜론은 당도가 높고 과육이 부드러워 여름철 인기 농산물로 지역 안팎에서 인기 있는 농특산물로 꼽힌다.

이영주 영암군 홍보전략실장은 “고향사랑기부제를 널리 알리고 기부자에게 영암의 특별한 맛과 정성을 전하기 위해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전국 기부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진도군, 민원인 3천300명에 ‘청렴서한문’ 발송

진도군은 13일 “지난 1년 동안 계약, 보조금, 재정, 세정, 인허가 분야 등 진도군을 방문한 민원인 약 3천300명에게 청렴서한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청렴서한문에는 민원 업무의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일이나 부패행위가 있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방법과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해 신뢰받

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진도군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청렴 실천 의지를 담은 서한문 발송을 통해 ‘군민 모두가 신뢰하고 체감하는 청렴한 진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세권 기자

“항일운동 성지 소안도 다녀오고 기념품 받으세요”

완도군, 광복 80주년 기념 이벤트 진행

완도군은 13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항일운동의 성지 소안도를 알리기 위해 ‘완도 치유 페스타’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벤트는 소안도의 소안항일운동기념관을 방문한 관광객 100명을 대상으로 14일부터 1

8일까지 진행하며, ‘2025 완도 방문의 해’ 기념품 장우산과 텀블러 중 하나를 증정할 계획이다.

참여 방법은 소안항일운동기념관(소안면 소안로 283)에서 찍은 사진을 개인 SNS에 게시한 후 ‘완도 치유 페이’ 현장사무소를 찾아 인증 후 기념품을 받으면 된다.

현장 안내소(완도를 해변공원로 84)는 완도 해조류센터 내 위치 해 있으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완도군 관계자는 “소안도는 일제 강점기 항일 구국의 횃불을 드높였던 항일운동의 성지로 꼽힌다”면서 “소안도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이벤트를 마련했으니 많은 분들이 소안도를 찾아 나라 사랑의 참 뜻을 기리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